

2018 년 10 월 28 일 “복음의 여정(5) 죄의 법을 이기며”(롬 7:21~8:2)

<도입>

살면서 자신이나 가족/교우 등에 대해서, 또 어떤 일의 결과를 맺었을 때 좋긴 한데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. 또 뭔가 더 잘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. 직장, 가정, 신앙 생활에서 열심히 하지만 희망보다는 고통의 예감을 직면하기도 합니다. 대개 이런 부족감은 삶의 덜미를 잡습니다.

[1] 죄의 법

뭔가를 더해야 하고, 하기도 하지만, 이렇게 하다간 충분히 다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,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에 잡힌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. **24 절**. “나는 곤고한 사람”이라 말합니다.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뜻합니다.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것은 **23 절** 자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오기 때문입니다. 바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.

여기서 ‘죄의 법’은 우리의 몸이 세상 가치관과 방식에 최적화 되도록 추구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. 내가 부족하니까 ‘더해야 한다’는 생각은 당연히 현재에 감사할 수 없게 만듭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잘 하고, 더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강박 아래 있게 됩니다.

공동체에서 리더들은 이런 강박에 빠지기 쉽습니다. 부족함이 자신의 맡은 일에 장애가 된다고 믿으므로 자기 성취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것, 사랑과 존중이 담긴 협력(하나됨)을 위한 관계형성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.

부족하고, 잘못하고, 더 나아가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강박이 되면 곧 행동과 태도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, 타인과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.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. 이런 행동 양식을 완벽주의(perfectionism)라고 말합니다.

[2] 삶의 덧, 완벽주의

완벽주의가 복음으로 사는 여정에서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지 보겠습니다.

- (1) 사람과 공동체의 참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기 어렵습니다. 장점을 인정하기 힘들어집니다.
- (2)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. 완벽주의는 ‘좀 더 나은’ 막연한 수준을 좇기 때문에 끝내 이를 수 없습니다. 결국 남에게 인정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(일시적).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 경계해야 할 것은 ‘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’는 말씀이었습니다(마 6 장).
- (3) 참 행복과 감사가 없습니다. 완벽주의는 내 삶은 이래야 된다는 이상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up/down 을 거치는 것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.
- (4)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. 사랑이 좋은 것을 알지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. 완벽주의는 자기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. 이것은 역창조 행위입니다.
- (5)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. 아이러니컬 하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분 자녀가 되었는데, 살면서 그 사랑을 누리지는 못하게 됩니다.

그래서 완벽주의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죄임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. **23 절**. 나를 사로잡아 오는 죄의 법의 가장 큰 목적은 그분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것입니다. 마귀 입장에서는 이것만 이루면 대성공입니다.

[3]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방법

**22 절**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한 악도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. 사도는 이 갈등 앞에서 “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” 절규합니다. “누가”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예수님이 어떻게 건져내십니까? 정죄하지 않는 사랑으로 입니다. **8:1-2** 읽어보세요.

본문 22, 25 절에 나온 '하나님의 법'은 8:2 에 나온 '생명의 성령의 법'을 가리킵니다.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? '정죄하지 않는 사랑' 입니다.

사도는 롬 8 장까지 전반부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8:34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! 그리고 8:37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. 정죄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.

현실에서 정죄의 말과 생각에 쉽게 붙들립니다. 화나고, 절망하고, 냉담하고, 불안한 이유 중 하나는,

- 더 잘 해야 해, 다시 말하면, 왜 이 정도밖에 못해?
- 더 있어야 해, → 여태까지 뭐했어?
- 내가 별 볼 일 있나? → 무능력해, 실패자야.

모두 정죄감 때문입니다. 죄의 법에 붙들린 모습들입니다.

그러나 정죄없는 사랑을 만났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?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자신을 정죄없이 보게 됩니다. 그러면 용기있게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께 전적 의탁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는 경쟁과 분노의 힘으로 살았다면, 이제는 자신의 부족/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사랑 안에서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사모함과 열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. 사랑은 참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.

기도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 139:23-24 을 보겠습니다.

23 절 '마음' = anxious thoughts(불안함); 24 절 '악이 있나' = any offensive way(공격적인, 마음을 묶는)

<맺음>

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힐 때입니다. 이것은 부족감으로 시작하게 하는 완벽주의로 이릅니다. 우리는 정죄 없는 사랑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. 이 승리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.

<나눔의 질문>

1.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영역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. 나는 어떤 측면에서 (막연한) 부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두려운지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. (신앙생활을 볼 때, 자신의 성품과 능력의 측면을 볼 때, 자녀를 볼 때, 리더(교회나 사회/국가), 가정, 교회를 볼 때 등...)
2. 사도는 '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'을 보고 확신했습니다. 나 또한 나의 곤고함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기 때문임을 보고 있습니까? 죄의 법은 나를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까요? 위의 [2]를 참고하면서 말씀해 보십시오. (본문을 여러 번 읽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)
3.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내게 복음은 무엇입니까? 그 복음의 역사를 맛보고 있습니까? 나누어 보십시오. 이것을 위해 시 139:23-24 의 간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.